

効率的인 國民學校 英語教育의 方向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斗 弘

指導教授 金 順 澤

1983年 7月 日

金斗弘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李壽亨

副審

黃亨沃

副審

金斗弘

1983年 7月 日

目 次

I. 序 論	2
II. 早期 外國語教育 理論	4
1. 理論的 背景	4
2. 우리나라의 贊反論	10
3. 綜 合	14
III. 教育現場과 諸 問題	15
1. 教師의 問題	15
2. 學生의 問題	16
3. 學校의 問題	17
IV. 外國語 教授法	19
1. 技 能	19
2. 發 音	20
3. 語彙와 構造	23
4. 노 래	25
5. 게 입	26
V. 早期 英語教育의 教材	28
1. 英語教材의 要件	28
2. 英語教材의 內容	29
VI. 結 論	32
參考文獻	34
Summary	36

I. 序 論

國民學校 上級學年에서 英語教育을 實施하자는 文教當局의 發意는 1971年 1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文教部에서는 國民學校 英語教育의 實施 여부를 놓고 公聽會를 개최한 바 있다. 그 때의 분위기는 早期 英語教育은 아직은 時機尙早라는 方向으로 意見의 一致가 되었다. 그리하여 文教部는 일단 그 案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후 7년이 지난 1978年 12월에 文教當局은 또 다시 國民教育 英語教育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는 바 신문지상과 좌담회 및 관련학회에 의해 열띤 贊反 兩論이 展開되 오다가 마침내 1981年 各 市道別 國民學教別 재량으로 4.5.6학년의 特別 活動時間을 통해 일주 1시간정도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일단 實施하는 쪽으로 公式化 되었다.

早期英語教育의 實施가 이처럼 政府次元에서 決定된 이상 筆者는 이 問題의 贊反을 또다시 들추어 論難을 위한 研究를 進行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國民學校에서 英語를 가르치는 問題의 妥當性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學者들이 多角度로 研究를 해왔고 또 理論的인 當爲性이 立證되어 充分한 검토끝에 實施하기로 決定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筆者는 早期英語教育을 政策的으로 施行하기로 한 이후 그 施行을 成功的으로 이루기 위한 여러학자들의 研究는 별로 없었다는데 問題를 삼기로 한다.

열띤 공방전으로 맞서오던 早期英語教育의 問題가 贊反 兩論의 名分만을 앞세운 채 정작 실질적으로 論議가 필요한 效率的인 國民學校 英語教育의 方向에 대해서는 그 研究가 소홀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本考는 우리나라 英語教育의 向上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國民學校 英語教育을 어떻게 하면 效果的이며 成功的으로 實施할 수 있을지를 考察하고자 한다.

특히 本考는 國民學校 英語教育을 위한 實踐的 向上 方案의 糾明에 重點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筆者는 다음의 6章으로 이 글을 構成하려고 한다.

제 2 장에서는 早期英語教育에 관한 理論的 背景과 우리나라에서 學論되어온 早期 英語教育의 贊反論을 간단히 검토하여 그 示唆點을 綜合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早期英語教育의 現場이 될 國民學校에서 教師와 學生과 學校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를 밝히려 한다.

제 4 장에서는 國民學校에서 어떻게 英語教育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教授法의 問題를 考察하려고 한다.

제 5 장에서는 早期英語教育에서 使用할 수 있는 教材가 갖추어야 할 基本 要件과 內容을 다루고 제 6 장에서 結論을 指示하고자 한다.



Ⅱ. 早期 外國語 教育理論

1. 理論的 背景

世界的으로 早期 外國語教育의 問題가 크게 論意된 것은 1950년대 부터이다. 물론 이 問題는 그 以前에도 가끔 거론되어 왔지만 50년대부터 國民學校에 外國語 教育이 급속하게 成長, 波及되면서 활기를 띠어 왔다. 國民學校에서 外國語를 가르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主張은, 아동들은 外國語의 習得이나 發音에 있어 模倣性이 先天的인데 이런 素質은 적정한 나이가 지나면 점차 상실된다는 데 있다.

여기서는 이런 問題와 관련하여 外國語를 國民學校에서 가르칠 경우 學習者의 年齡과 知能과 動機 및 言語問題에 대해 贊成과 反對의 立場을 提示하기로 하겠다.

가. 年 齡

言語心理學에 의하면 어린이가 言語를 배울 때가 學習上 가장 적절한 時期인데 이 때가 言語形成期(3~14세)임으로 記憶力과 模倣力이 극히 旺盛하며 거의 無意識的으로 言語를 學習한다고 한다.

美國의 神經學者 Wilder Penfield는 우리 두뇌의 복잡한 言語構造는 思春期 이전의 유아기 및 어린시절에 發達하고 青年期나 成人에 비해 새로운 말을 받아들이는 데 월등히 앞선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anguages should be learnt by the normal Physiological Process as a by-product of other Pursuit.

The brain has a biological time table of language learning. The complex speech-mechanisms of the dominant hemisphere of the Cerebral Cortex develop in fancy and Childhood before the onset of Puberty¹⁾

또 Lenneberg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發達過程에 있는 두뇌구조는 言語習得에 뛰어나게 적합한 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1)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 Princeton Univ. Press. P.226

人間이 言語를 터득할 수 있는 機構는 두뇌가 가지고 있는 神經 解剖學的 내지는 生理的 屬性에 속하는 것이며 發達過程에 있는 두뇌는 言語習得에 가장 적절한 感受性和 柔軟性を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早期 外國語 教育論을 贊成하는 사람들은 Lenneberg가 말하는 이른바 뇌유연성 이론 (the brain-Plasticity theory)에 입각하여 外國語는 정해진 때 배워야 한다는 決定的 時期 理論 (the Critical Period theory)에 根本을 두고 있다. 2)

Lenneberg는 어떻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전부터 生後 18個月과 28個月 사이에 말을 시작하는가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Lenneberg는 이 時期야 말로 뇌세포의 發達이 가장 왕성하며 이러한 發達은 13세까지 계속되는데 2살부터 思春期까지인 이 時期가 言語習得의 決定的 時期라 보는 것이다.

이 期間에는 액센트가 없는 外國語의 習得이 용이하나 13세를 넘어 思春期에 들어서면 이전처럼 自動的으로 外國語를 배우는 일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Lenneberg의 주장에는 두개의 증거가 그 論理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의 증거는 言語機能의 반구편중 현상 (lateralization) 3)이고 다른 또 한가지 증거는 뇌반구 절제수술 (hemispherectomies)에 대한 임상보고이다.

거의 좌측 부분이 言語機能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알려져 있으나 어떤 사고로 언어장애를 일으키는데 연령에 따라 그 언어장애 정도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臨床報告는 나이가 어릴 때 손상당할수록 언어장애를 없애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까닭은 뇌의 좌측 전반구가 담당하던 기능이 뇌의 오른쪽으로 옮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뇌 기능의 轉移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 진다. 즉, 思春期에 이르러 뇌의 반구편중 현상이 다 이루어 지고나서, 바꿔 말해서 13세를 지나 좌측 전반구에 손상을 입게 되면 기능이 轉移가 이루어 지지 않아 영원히 言語機能은 상실되므로 13세경에 언어기능은 完了된다는 것이다.

2) Lenneberg, E.H.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Wiley. Indiana Univ. Press. 參照

3) 이 현상은 學者에 따라 측면화 현상이라 말하는 견해 (전상범, 1981)도 있다.

또한 Lenneberg는 어린이 경우 언어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뇌의 좌반구를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린이 경우 반구편중 현상이 완료되지 않아 뇌의 좌반구로 부터 우반구로 轉移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言語習得은 2~13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Lenneberg의 觀點에서 볼 때 外國語 教育은 早期에 實施해야 유리하다는 입장이 된다. 이 觀點은 外國語는 뇌의 반구편중 현상이 끝나기전, 즉 대뇌가 柔軟性이 있을 때 더 잘 배운다는 Scovel의 主張이 뒷받침 해 줄 수 있다. 4)

그러나 Krashen은 이에 대한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 5) Krashen에 의하면 반구편중 현상은 5살에 完了된다는 것이다. 즉, Lenneberg가 主張하듯이 반구편중 현상이 思春期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5살에 完了된다면 대뇌의 柔軟性은 이미 國民學校 入學前에 끝나게 되어 早期 外國語 教育은 5살 이전에 實施하지 않는 한 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早期 外國語 教育에 대한 贊成論者의 主張은 다소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뇌세포의 言語領域이 굳어지기 전에, 즉 言語習得 能力이 감퇴되기 전에 外國語를 어릴 때부터 자주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外國語를 잘 習得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論理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Stern이 比較 綜合하는 다음과 같은 年齡의 차이에 대한 長短點⁶⁾은 早期 外國語 教育에 많은 示唆點을 던져주고 있다.

(1) 3세~10세

長 點

- (가) 두뇌의 神經 生理學的으로 外國語 習得에 가장 效果的인 時期
- (나) 자연스런 發音
- (다) 記憶力이 좋음.

4) Scovel, T. 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 Language learning, 19 PP 245-254

5) Krashen, S. 1973. "Lateralization, language learning, and the Critical Period: Some new evidence"; Language learning 23. PP 63-74.

6) Stern, H. 1967. Foreign Language in Primary Educ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P. 21

(라) 그만큼 外國語 배우는 期間이 길어짐.

(마) 가장 쉽고 效果的으로 배움.

短 點

(가) 母國語와 外國語의 혼돈

(나) 非意識的 習得

(다) 消費된 時間에 비해 結果는 비례하지 않음.

(2) 11세~성년 이전

長 點

(가) 言語에 대한 理解力 增進

(나) 아직도 外國語를 배울 時間的 여유가 있음.

(다) 記憶力 向上과 知的 成長

(라) 母國語의 定着으로 外國語를 배우는데 혼돈 우려없음.

短 點

(가) 이전보다 힘들

(나) 自意識의 강함.

(다) 暗記하기 약간 싫어함.

(라) 다른 學科보다 多樣하고 과다해 짐.

(3) 성년기

長 點

(가) 目的 意識이 뚜렷함.

(나) 動機가 뚜렷함.

(다) 推理力이 強함.

(라) 最小의 時間에 最大의 效果

短 點

(가) 시간의 제약

(나) 다른 일로 外國語 習得에 전념하기 어려움.

(다) 外國語 工夫가 不規則的임.

나. 記憶力과 知能

Brown은 Jean Piaget의 知能發達段階를 說明하면서 11세경에 具體的 操

作段階로 부터 形式的 操作段階로 급격히 변화하고 특히 母國語와 外國語 習得의 決定的 時期를 思春期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Jean Piaget outlines the Course of intellectual development in a child through various stages: the Sensorimotor stage from ages 0 to 2, the preoperational stage from age 2 to 7, and the operational stage from ages 7 to 16, with a Crucial change from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to the formal Operational Stage around the age of 11.

The most Critical stage for a consideration of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ears to Occur, in Piaget's Outline, at Puberty⁷⁾

따라서 이 主張을 받아 들인다면 記憶力에 관한 外國語 學習은 어릴수록 좋다는 立場에 놓이게 된다.

反對論者들은 記憶力과 知能은 어느 정도까지는 나이와 비례한다는 主張을 내세운다. 例를 들어 Miller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暗記할 수 있는 자리수(digit)가 增加한다고 하면서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⁸⁾



Number of Digits	Age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6	10
7	
8	16 ~ 20

7) Brown, H.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 Hall, Inc. P.50

8) Miller, G.A. 1951.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w York, Mcctraw-Hill Book Co. P.210

한편 Mackey도 記憶力은 연령에 증가하는 바 20세까지는 꾸준히 增加하고 20代에는 현상을 유지하며 30세부터는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9)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수증한다면 外國語 學習은 그 시작이 어릴 때일수록 좋다는 것은 잘못된 主張이 된다.

그러나 言語習得에서 記憶力이나 知能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며 어차피 現在의 中學校 英語도 20세나 15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3년 정도 그 연령을 낮춰 實施한다고 해서 그토록 엄청나게 不利하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具體的 操作段階에서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것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Jean Piaget의 理論에서 早期教育에 관한 示唆點을 얻어야 한다.

다. 動機와 態度

動機는 學者들에 따라 그 分類가 다양하나 그 기능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意見의 一致하고 있다.

動機는 어떤 個體에 活力을 불어 넣어 그 개체의 활동 方向을 提示하고 또 活動을 선택케 해 준다. Stern은 動機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otivation is vital to successful foreign language teaching as it is for other subject. As for other learnings, self-initiated Motivation makes not only for more learning but for continued learning beyond the direct sphere of school influence. 10)

이처럼 學習에 있어서 動機가 미치는 結果에 대해서는 이미 心理學에서도 說明되고 있는데 國民學校에서는 外國語 學習에 대한 動機誘發이 비교적 어려운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動機 誘發은 成功的인 外國語 學習의 要因이 되므로 外國語를 어떤 目的을 위한 方便으로서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現在 우리나라 國民學校 4학년 학생중 英語를 배우기를 원하는 學生이 15,618명중 7,994명이나 되고 있는데, 11) 英語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9) Mackey, W.F. 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 Press. P.131

10) Stanton, S. 1941. Psychology in Educ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Inc. P.439

11) 신성철외 2인: 1982 " 早期英語教育의 實踐方法 및 教材開發 ". 言語 제 3호, 충남대 언어 훈련원. P. 19

早期 英語教育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國民學校의 英語教育은 特別活動時에만 實施하기로 되어 있어서 과연 效果的인 動機誘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분히 의심스러운 問題에 속한다. 우리나라 일부 국민학교에서 實施했던 英語教育이 失敗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동기유발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된다. 12)

라. 言 語

言語問題는 두가지 方向으로 論議될 수 있다. 한 가지는 外國語를 습득하는 計策(Strategy)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外國語 習得이 母國語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問題이다.

前者의 경우는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外國語도 母國語와 비슷한 計策으로 배우고 모국어의 간섭현상(interference)도 적어서 유리하다는 論旨이며 後者의 경우는 外國語를 배움으로써 母國語 習得이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最近의 二重言語(bilingualism) 習得에 대한 研究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早期 外國語教育의 必要性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Brown은 어린이가 두개의 言語를 同時에 배우는 二重言語상태는 두 言語가 쓰이는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母國語를 배울 때 보다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두개의 言語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3)

2. 우리나라의 贊反論

前述한 理論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早期英語教育에 대한 갖가지 見解가 활발히 提示되어 왔다. 국민학교 교육은 母國語 教育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全面 反對의 立場이 있는가 하면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贊成하는 見解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早期英語教育을 實施하자는 見解도 있다.

여기서는 그간의 過程을 考察함으로써 國民學校에서 實施될 英語教育의 方向設定

12) 전 상범. 1981. "FLES에 관한 몇가지 문제들" 서울사대 논총 23집. P.36.

13) Brown, H. D. op. Cit, P.56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贊成측의 立場으로 네 학자의 主張을 보고 反對측의 見解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贊成論

최준기 教授의 主張¹⁴⁾

(1) 점차 증가해 나가는 英語使用 人口와 더불어 우리 經濟形편이 教師를 大量으로 養成할 수 있으며 또한 視聽覺教具가 大量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國民學校부터 英語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外國에서도 早期 外國語 教育을 實施하거나 實驗하고 있다.

(3) 主體性 問題가 따른다는데 별로 問題될 것이 없다.

(4) 一部 私立學校와 강습소에서 이미 實施중인데 國家的인 次元에서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5) 實施하는 경우 指導內容을 中學校와 다르게 해야 하고 精確한 發音과 억양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6) 教授面에서 口語위주의 놀이와 유희를 加味해야 하며 시청각교재를 活用하고 흥미위주로 進行해야 한다.

(7) 問題點으로는 教師訓練이 시급하며 國民學校의 학습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콩나물 교실을 解決하여야 한다.

박순함 教授의 主張¹⁵⁾

(1) 外國語 教育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 主體性 問題는 오히려 대법하게 대처해야 한다.

(3) 英語教育에 못지 않게 國語教育을 強化해야 한다.

(4) 問題點으로는 入試위주의 英語工夫, 非能率的인 英語授業, 콩나물教室, 教師 資質저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解決되면 早期英語教育을 實施할 매력을 갖게 된다.

(5) 기왕에 국제언어로써 英語를 배워야 할 바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期間을 늘리는 것이 좋다.

14) 최준기. 1978. "國民學校 英語教育論"

"김영희박사. 송수기념 영어학 논총"

15) 박순함. 1981. 國民學校 英語教育" "경향신문 81년 10월 16일 호"

양인석 教授의 主張¹⁶⁾

- (1) 國民學校 英語教育은 「잘 하기만 하면」 成功할 수 있다.
- (2) 「잘 하기만 하면」이라는 條件은 훌륭한 教師, 좋은 教材, 적절한 學級 人員數 등을 意味한다.
- (3) 外國의 實例 및 추세는 早期 外國語教育쪽으로 가고 있다.
- (4) 主體性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애국지사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큰 우려는 없다.
- (5) 생활양식과 의식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早期英語教育은 우리 後孫을 위해서, 그리고 英語未來學 設定을 위해 필요하다.

박준희 教授의 主張¹⁷⁾

- (1) 世界的인 추세는 早期英語教育을 實施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국가적 사업의 하나로 크게 추진하고 있다.
- (2) 외국어는 가능한 일찍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학습케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 (3)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外國人 教師를 채용하여 학습케 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 (4) 事大主義的 思考方式을 유발하지 않도록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나. 反對論

박남식 教授의 主張¹⁸⁾

- (1) 早期英語教育의 成功은 神話에 불과하다.
- (2) 早期英語教育이 成功할 수 있다는 증거로 이민간 어린이들이 이민가면 英語를 쉽게 그냥 배우니까라고 하는데 이민간 아동과 국내아동의 여건은 너무나 다르다.

前者의 경우는 英語習得의 目標가 절실하고 英語가 授業言語이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서 영어에의 노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英語教師가 本國人

16) 양인석. 1980. "영어 조기교육의 찬반론" 외국어교육 논문집 한국외국어대학

17) 박준희. 1981. "외국어 조기교육 과연 좋은가" 제주신문 81년 2, 13호

18) 박남식. 1979.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딜레마" 영어교육 17, P.P. 51~61

이고 英語 使用時 수치감이 없고 학생수가 적을 뿐더러 시청각 시설이 훌륭하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에는 정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3) 問題點으로는 英語가 최소한 學校英語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적없는 教育이 된다.

(4) 어린이는 쉽게 배우는 대신 쉽게 잊어버리며 發音에서는 유리하나 추진력 나 이해면은 약하다.

(5) 贊成論者들은 연령이 마치 外國語 教育의 成敗를 가름하는 양 이야기 하고 있으나 연령외에 태도, 적성, 당국의 관심과 지원, 교사의 자질, 교재, 시설, 교수법 등 여러면을 綜合해야 한다.

(6) 따라서 그 代案으로서 中等學校의 경우 지금까지의 文法과 發音위주의 外國語 教育에서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기능위주의 教育을 하도록 하고 大學에선 번역위주에서 독해력, 청취력을 강조하는 한편 原書를 많이 읽게 하고 웅변, 수필대회, 토론 및 국제회의 참석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최용재 教授의 主張¹⁹⁾

(1) 연령과 관련된 외국어 습득론은 최근들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2) 10세 이전에 外國語 學習을 시작할 경우 정확한 發音을 배우는데 유리한 점은 있으나 外國語 自體를 익힌다고 보장받을 수 없다.

(3) 外國語를 유창하게 하려면 그 나라에 대한 文化的 社會的 理解가 필수적이며 외국어학습에 決定的 時期는 없다.

최은경 教授의 主張²⁰⁾

(1) 現在 中·高等學校에서 하고 있는 英語教育의 內容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學生들이 연령만 낮춘다고 英語會話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短期間에 걸친 몇몇 학교의 연구결과를 신뢰하느니 보다 긴 안목으로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미칠 長短點을 고려해야 한다.

(3) 資質있고 有能한 英語教師의 확보가 필요하다.

오영숙 教授의 主張²¹⁾

(1) 教室의 크기에 問題가 있다. 한 교실에 60명 이상을 教育한다는 것은

19) 최용재. 1981. "영어조기교육 꼭 해야하나" 영어교육학회 심포지엄. 제 18494호

20) 최은경. 1981. Ibid.

21) 오영숙. 1981. "조기 외국어교육은 부적당"

외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이며 시설면에서도 外國에 따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 國民學校 教育은 국적있는 교육에 重點을 두어야 하는데 早期 外國語 教育을 實施하면 영어충상의 경향이 생겨나 국민정신을 그르칠까 염려된다.

(3) 어린이들은 빨리 익히고 쉽게 배우지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약점이다. 模倣性이 強해 發音은 英美人처럼 잘 할 수 있으나 추리력 및 이해력이 부족하여 복잡한 구문이나 개념을 잘 익히지 못한다.

(4) 따라서 早期 外國語教育에 앞서 現在 實施되는 中·高等學校의 英語教育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綜 合

이처럼 早期 外國語教育 전반에 걸친 贊反論을 보면 그 지배적인 意見은 「早期 外國語教育은 잘 하기만 하면 成功할 수 있다」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잘 하기만 하면」이라는 條件이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教師의 資質, 教材, 社會的 뒷받침, 學級定員數, 主體性등을 意味한다. 이러한 條件들은 早期 外國語教育의 原理의 問題라기 보다는 환경 및 여건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것들만 해결된다면 國民學校 英語教育은 可能하며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意見이 모아진다.

현시점에서 早期英語教育을 實施하기로 政策的인 面에서 決定된 이상 反對論者들은 끝까지 反對만 하거나 外面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反對理由와 要素들이 최대한 改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곧 效果的인 國民學校 英語教育 向上에 이바지하는 길이되기 때문이다.

Ⅲ. 教育現場과 諸問題

早期英語教育이 직접 實施될 國民學校 教育現場과 그 構成要素에 대한 考察은 效率的인 國民學校 英語教育을 위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문제이다. 成功的인 外國語 教育을 위해 教師와 學生과 學校는 각기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分析하고 각각의 問題에 대해 提言을 하려고 한다.

1. 教師의 問題

國民學校 英語教育의 成敗는 教師에게 달려 있다. 아무리 教授理論이 훌륭하고 教材가 좋으며 學生들이 우수해도 이를 活用하는 教師가 有能하지 못하면 教育은 成功하지 못한다. 韓國的인 文化풍토 속에서 教師가 갖는 心理的 特性이란 學生들을 다룰 때 너무 권위의식에 사로 잡힌다는 점이다. 22)

教師의 지나친 위엄은 學生들에게 不安한 상황을 造成하여 教師를 두려워 하고 結果的으로 教育의 失敗를 초래케 한다. 아울러 學生들이 잘못을 할 경우 物理的으로 벌을 가하느니 보다 따스한 指導로 教師와 學生간의 圓滑한 關係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教師는 自身の 職業에 使命感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教育에 對한 애착과 정열은 특히 영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사명감이 넘치는 教師일 수록 英語教育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國民學校 英語教師가 지녀야 할 자세와 관련하여 박순함 교수는 中·高等學教 教師보다 그 人品에 있어 더 높은 수준에 놓여야 함을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英語教育에 임하는 교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스스로 判別해야 하고 그것을 자신이나 아동들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한 자세에서만 잘못된 言語를 가르치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2)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윤태림”의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과 “이규태”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서열의식, 체면의식, 자학의식은 예의식 등 학습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밝고 긍정적인 性格을 지닌 사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고 이 어려운 課題의 초기 단계에 있어 誠心껏 노력하면 자기 자신의 實力도 계속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교사가 많이 發見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그 限度内에서의 最大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3)

教師의 心理的인 問題外에 英語 早期教育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有能한 教師의 問題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教師들 자신도 심각히 생각하고 있다. 前述한 報告書에 의하면 早期英語教育에 가장 장애요소가 되는 問題點을 몇가지만 쓰라는데 대해 25.4%가 교사의 指導能力이라 답하고 12.2%가 發音指導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24)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사의 능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시일내에 解決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教材 및 資料가 開發되어야 하고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教師 再教育을 實施하고 教育大學에서 英語指導를 보다 강화하는 方法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2. 學生의 問題

앞서 筆者는 外國語 學習에 있어서 學生의 動機나 態度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흔히 學生의 動機는 두가지로 나누어 說明되고 있는데, 道具的 動機(instrumental motivation)와 統合的 動機(integrative motivation)가 그것이다.

道具的 動機는 어떤 實質的인 目的 다시 말해서 上級學校 시험이나 취직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外國語를 배울 경우를 말하고, 統合的 動機는 外國語를 使用하는 國民과 文化에 대한 理解나 同化를 목적으로 外國語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25)

초기의 연구에서는 統合的 動機를 가진 學生이 道具的 動機를 가진 學生보다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의 研究에서는 道具的 動機도 높은 경우

23) 박순환. 1982. " 効率的인 國民學校 教育을 위한 提言 " 시사영어연구 277 호. 서울 ; 시사영어사. P.49 .

24) 신성철 외 2인 op.Cit. P.24 .

25) Lambert, W.E. 1963.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41

에는 統合的 動機보다 나은 성취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示唆하는 바는 實察 外國語를 배우는데 어떤 종류의 動機를 갖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動機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의 報告書를 다시 확인한다면 우리나라 英語教育에 대한 國民學生들의 動機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國民學生들이 英語教育과 관련하여 英語라는 言語와 英語를 사용하는 사람, 국가, 문화등에 대한 정신적 자세는 아주 긍정적이다.

우리에게 美國은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우방으로 되어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英語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學生들의 英語에 대한 태도는 早期英語教育을 成功的으로 이끄는 데 바람직한 요소가 된다.

아울러 英語를 배우기를 원하는 學生들에게서 知的能力的 問題가 가끔 거론될 수 있다. 희망학생 내부에 存在하는 광범위한 知能의 분포를 고려하여 教師는 中間의 다수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우수학생과 열등학생간의 協力的 분위기를 造成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돋구어 주어야 한다.

3. 學校의 問題



이 問題는 教師나 學生이 어떻게 할 수 없는 行政上的 問題이다. 먼저 일부 教師들은 教科課程上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즉, 現在 國民學校에서는 8개 教科目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教師나 學生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여기에다 英語科目이 생겨 9개科目이 되었을 때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早期英語教育에 대한 認識을 統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教師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시청각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視聽覺 資料는 앞으로 開發되는 教材와 더불어 많이 수집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 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기제를 마련하는 財政上的 어려움이 더 클것이다. 손쉬운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학교의 財政은 이를 뒷받침하는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학교 教育現場에서 發見될 수 있는 早期英語教育에 관련된

問題點들 중에서 教師, 學生, 그리고 學校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問題點이 나타날 수 있으나 教師와 學生과 學校는 혼연일체가 되어 早期英語 教育을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相互補完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外國語 教授法

英語 教授法으로 알려진 이 세상의 여러 方法論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 理論的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效果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느 하나의 方法도 學生과 教師에게 完全하고 唯一하게 成功한 方法은 없다. 따라서 教師는 여러가지 教授法에 대한 長點을 최대한 살려 우리의 여건에 알맞은 方法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國民學校에서 英語를 가르칠 경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여건에 맞는 效果的인 方法이 될지를 實察的인 側面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技 能

傳統적인 英語教育에 있어서는 첫시간의 수업이 알파벳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각 文字의 이름을 외우고 또 글씨 쓰는 법을 훈련시키는데서 첫시간부터 흥미를 잃고 부담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예는 中學校 과정에서 흔히 있어온 일이다.

더우기 文字들의 名稱을 외우는 것과 같이 文字쓰기, 연음이 실제 낱말이나 文章을 올바르게 發音하고 活用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에게 처음부터 不必要한 集中力과 勞力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國民學校의 英語教育은 母國語와 병행되어야 하고 계속성있는 學習과 進보성있는 學習計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하나의 言語를 學生이 學習한다는 것을 도우는 活動이라 본다면 教授法은 言語體系와 學習心理學의 原理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外國語에 의한 思考方式이 필요하다. 따라서 音體系와 構造體系를 철저히 學習하여 그것이 自動的이며 無意識的인 慣習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두연습이 言語習得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흔히 外國語 學習에 있어서는 言語 形成期에 습득한 모국어의 관습에서 오는 여

러가지 간섭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文型연습이 필요하고 또한 양적으로도 많은 연습을 實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母國語만 접했던 아동이 言語 形成期를 지난후 학습 대상어를 습득하려면 많은 장애와 간섭을 받게 될 터인 바 이때 모국어와 대상어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내고 그 차이점을 理解시킴으로서 效果的인 英語習得이 가능할 것이다.

Anderson은 산 言語는 Spoken Language이며 外國語 學習의 目的은 그 外國語의 네 기능을 완전히 습득하고, 그 기능을 통하여 그 外國人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의 文化와 文明을 감상하며, 이해와 감상을 통해 보다 평화롭고 번영있는 人類의 장래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²⁶⁾

우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가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 國民學校의 外國語 教育에서는 말하고 듣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민학생이 理解하고 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外國語로 읽고 쓸 수 있는 점에 까지 읽기와 쓰기능력도 높여 주어야 한다.

이처럼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려면 국민학교 학생들은 주의깊은 듣기, 모방적 반복, 그리고 철저한 연습의 단계를 거쳐 기본적 言語形態의 自動的 使用能力을 습득해야 한다.

Fries도 아동들이 일정한 어휘로 음성조직을 습득하고 구조상의 방안이 자동적으로 되어 습성화했을때 外國語를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²⁷⁾

이것은 처음부터 文語를 치중한 사람보다 口語의 훈련을 통해서 학습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네 기능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을 보면 文語中心의 教授法보다는 口語中心의 方法이 效果的인 教育成果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2. 發 音

國民學校 英語教育에서 가장 큰 效果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의 하나가 發音의 領

26) Anderson, T. 1969. 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Austin; Texas Univ. Press. P.P.11-12

27) Fries, C.C. 1945. Teaching &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P.3

域이라 할 수 있다. 그럴수록 發音教育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問題이다. 잘못 가르치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障礙요인을 심게 되어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만큼 못한 事例가 생길 수도 있다.

가장 理想的인 方法은 英語를 母國語로 하는 教師와 韓國인 敎사가 팀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發音이 아주 좋은 韓國인 敎사 한사람으로도 敎育효과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國民學校 英語敎育에 임하는 教師는 발음 敎育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精確한 發音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먼저 最小對立語 (minimal Pair)를 찾아 가르쳐야 한다. toy와 boy, pray와 play 등은 각각 [- i] [-ei] 라는 똑같은 환경을 취하고 있지만 와 /b/, /r/과 /l/등이 對立이 되고 있어 이것을 最小對立이라 한다.

이것은 子音의 경우이나 pit와 pet, man과 men에서는 母音도 對立을 이루어 意味 內容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敎師가 하나의 發音만을 發音하고 그것을 어린 학습자에게 모방시키게 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發音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두개의 發音을 比較하여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각 發音을 올바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紙片에 對立되는 두 發音을 써서 그 發音에 그림을 옆에 그려주고 敎사가 번갈아 가며 계속 발음을 한 후 학생들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發音을 가르치는 것이 效果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너무 발음기호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pit에서의 P가 발음기호로 [P]이며 Stop에 있어서도 P가 발음기호로는 [P]가 되는 것이 일반敎과서나 사전에서의 常例인데 實察發音에서는 두 P의 발음이 相異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發音속에서 文字도 그 音價도 직접 精確하게 배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精確한 發音을 위해서는 發音時의 口形을 알려주는 것도 效果的이다.

일반적으로 敎師는 英美人이 吐入한 테이프와 자신의 發音에 의거하여 가르칠데지만 英語를 처음 대하는 어린이들로서는 비슷한 音으로 들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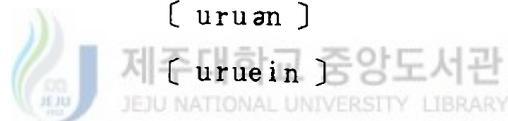
母音을 說明할 때에는 혀의 앞쪽인가 중간인가 또는 뒷쪽인가를 설명해 주고 또 혀의 높이가 어떠한지 말해 주어야 하며 同時に 口形을 오므리느냐 또는 펴느냐도 가르쳐 주는 것

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子音의 說明에 있어서도 양 입술, 이, 잇몸, 입천정, 연구개 및 혀끝, 혀 앞부분, 중간부분과 뒷부분등이 어떻게 결합하여 造音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때 英語發音을 研究하는데 있어 韓英音의 대조분석방법이 많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國民學校에서 英語發音을 教育하는데 있어서도 이 연구로 부터 응용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英語의 子音가운데 韓國語에는 없는 音價, 즉 /f/, /v/, /θ/, /ð/, /z/, /ʒ/ 등은 물론 새로 배우는 과정에서 잘 배워야 하겠지만 한국어에는 있되 그 구별을 잘못하는 /r/과 /l/의 구별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r/의 경우는 연습할 때 /uru/와 같이 發音시키는 것이 效果的인데 /r/음이 들어 있는 단어의 發音訓練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英 語 單 語	練 習 時 發 音	마 지 막 발 음
right	[uruait]	[rait]
run	[uruən]	[rən]
rain	[uruein]	[rein]



이와 마찬가지로 /l/의 發音에 있어서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al/음을 붙여서 發音시키고 최종적으로 /l/음을 없애는 방법이 使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자음사이에 母音이 들어가는 우리말의 習慣에 젖은 國民學生들은 子音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英語의 낱말의 發音에 무척 부담을 느끼게 된다. 흔히 中學校 學生들이 영어단어 Student를 發音하는데 S와 t사이에 [u]를 삽입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英語에서는 子音이 語頭에 오는 경우(play, pray, spray 등)과 語尾에 오는 경우(help, left, sixth)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別個의 소리를 하나씩 더 첨가시켜 發音시키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ray-pray-spray 또는 sick-six-sixth式으로 發音시킨다는 것이다. 英語의 母音은 子音보다도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본다. 英語에서 소위 긴장음(tense)과 이완음(Lax)의 구별이 問題가 되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혀와 입술의 모양들을 설명하면서 연습을 시키면 될 것이다.

國民學校 發音教育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강세(Stress), 리듬(rh-

hythm), 억양(intonation) 등 초분절음소의 重要性이다. 개개 낱말의 강세에 못지 않게 文章속에서의 리듬과 억양은 英語다운 부드러움과 정확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리듬군이 몇개씩 포함되는 비교적 긴 文章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부드럽게 發音하려고 할때 종종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약간 긴 文章은 적당히 몇부분으로 끊고 아이들로 하여금 다같이 끝부분으로부터 教師의 뒤를 따라 연습한 후 점차로 文全體를 정상적으로 發音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文章의 끝부분부터 연습시킨다는 것은 우리말과는 달리 英語는 文章의 끝을 정확한 音調로 發音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3. 語彙와 構造

現在 시중에 발간된 어린이들을 위한 英語冊을 보면 그림과 더불어 일련의 낱말들이 여러장에 걸쳐 쪽 소개하고 있다. 국민학교에서의 英語教育의 시초는 이러한 어휘항목이 나열 되어서는 안된다.

反面에 어휘를 처음부터 일정한 문항에 넣어 주어진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법의 利點은 內容이 있으므로 뜻이 곧 이해가 되며 記憶에 남을 것이고 文型속에서 접하게 되니 構文上의 위치와 기능도 자연히 터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들어 up이란 어휘를 살펴보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up이란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해 주거나 풀이해 주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up의 경우에는 get up, pick up과 같은 生活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表現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뜻과 用法을 배워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文法的인 범주의 명칭을 어린이들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칫 文法위주로 교육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단어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實體가 된다는 점을 어린이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휘면에서 한가지 더 첨가할 것은 한국어와 영어상의 構造的인 차이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名詞의 復數에 관련된 것으로 韓國語에서는 복수형 어미인 "들"이 붙어도 좋고 붙지 않아도 괜찮지만 英語의 경우 셀수 있는 名

詞라면 복수에는 반드시 복수형 어미나 복수형태가 와야 한다는 言語上的 規則이 있다. 또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가운데는 動詞의 不規則 과거형도 규칙 과거형과 적지 않는 혼란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다. 28)

이외에도 形容詞, 副詞의 비교급 모양이라든가 한국어에는 필요없는 관사의 사용 등도 형태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문장구조상으로 英語와 韓國語는 적어도 세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일인칭과 이인칭의 주어 및 목적어가 한국어에서는 생략되나 英語에서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국어의 조사와 영어의 전치사의 차이, 셋째는 한국어와 영어語韻의 차이이다.

韓國語에서 主語나 目的語가 생략되는 代表的인 경우를 보자. 물론 英語에는 생략되지 않는다.

가. 主語생략

o 일인칭 主語

(1) 집에 가고 싶다. → I want to go home.

o 이인칭 主語

(2) 어디 가십니까? → where are you going?

나. 目的語 생략

o 일인칭 目的語

(3) 물좀 주세요. → Give me some water please.

o 이인칭 目的語

(4) 사랑합니다. → I love you.

또 韓國語에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있으나 英語에서는 없으므로 英語의 文章에서 그 기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英語의 語順은 主語 - 動詞 - 目的語 順序로 되나 國語는 主語 - 目的語 - 動詞의 順序임을 자연스럽게 터득시켜야 할 것이다.

28) 英語가 母國語인 어린이 경우 come-came, go-went 등의 과거형이 매우 초기에 배워지는데 그대로 정확하게 배워 사용하다가 후에 과거형 helped, Played 등을 배우고 나면 이 규칙을 일반화 comed, goed란 말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4. 노래

아동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주의력을 집중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습과정에 音樂的 要素를 포함하면 效果가 크다.

국민학교 英語教育에서 노래의 效能이라면 動機誘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노래의 일반적인 效果로서 흥미와 동기유발을 통해 英語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여 준다는 것이다. 29)

노래와 더불어 배우는 英語는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記憶에도 오래 남는 다른 利點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英語노래를 수록한 冊과 카세트 테이프가 많이 나와 있는데 英語노래를 선정할 경우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英語教育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노래를 선정하여 教育에 效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教師가 노래를 통해 어휘, 발음, 문법, 문화중에서 적어도 한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노래를 고를 것.

둘째, 곡조는 간단하고 배우기 쉬워야 한다.

셋째, 가사는 반복적인 것이 유익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렴이 있는 것이 좋다.

넷째, 가사내용을 굳이 教科內容에 맞춰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와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채택된 노래는 教師에 의해 순차적으로 무리없는 적용단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적용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도 그 한가지 例에 해당한다.

첫째, 영어수업 시작전에 교사가 노래를 하거나 녹음기를 틀어 영어노래를 들려준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래를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둘째, 노래를 가르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들려준다. 학생들은 가사를 보면서 듣기만 한다.

29) 신용진. 1981. "英語教授 學習理論과 實察". 서울; 한신문화사. P. 282.

셋째, 곡조가 전혀 낯선 곡일 때는 “라라라”로 먼저 곡을 익히게 할 수 있다.
 넷째, 가사를 교사가 천천히 읽고 학생이 따라 읽는다.
 다섯째, 한소절씩 교사가 되풀이 하면 학생들은 듣고 있다가 한두명씩 그 소절을 교사와 같이 부른다.
 여섯째, 어휘나 문법을 설명하고 내용을 이해시킨다.
 일곱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부른다.
 여덟째, 英語授業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부른다.
 비록 노래는 英語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音樂이 주는 情緒的 效果는 따스한 人間愛를 形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딱딱한 영어시간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도 돋구어 效率的인 英語學習에 많은 利點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노래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보조수단으로서의 教授法에 속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계 임



때와 더불어 英語教育의 동기유발을 向上시킬 수 있는 보조방법에는 게임 (Game)이 있다. 게임은 英語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效果的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外國語 教育理論이 意思소통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의 배양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는 데서³⁰⁾이 방법은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게임은 言語의 네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기능별로 연습하는 방법과 내용에 따라 어휘, 숫자, 발음, 문법등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팀이나 個人別로 實施할 수 있다.

가계놀이를 例로 들어 보자.

가령, 과일 이름의 英語로 배웠다고 하고 그림을 그려 사과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자. 이때 教師와 學生이 다음과 같이 묻고 대답할 경우.

30) 이른바 社會言語學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話者의 言語表現과 더불어 言語의 社會的인 意味와 社會的 規則에 따라 言語를 使用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Teacher : what's this ?

Student : It's an apple.

이런 文章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가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이럴때 교사가 과일 가게 주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과일을 사오는 게임을 실시한다.

즉,

S : I'll take it

T : Thank you

式으로 게임을 進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 게임을 시키기도 한다.

英語로 간단한 시장까지 볼 수 있다는 自信心을 가르쳐 줌으로써 영어습득에 대한 열의는 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게임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지적되어야 한다.³¹⁾

첫째, 준비가 필요한 게임은 사전준비를 잘 할것.

둘째, 될수 있는 한 모든 학생이 다 즐길 수 있는 것을 할 것.

셋째, 게임을 통해 어느 한 학생이 心理적으로 심한 당황감이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넷째, 한 가지 게임을 너무 오래 하지말 것.

다섯째, 게임은 어디까지나 수업의 보조수단임을 인식할 것.

앞에서 筆者는 早期英語教育을 어떻게 실시하면 效果的인 것이 될 것인가에 관해 教師의 方法論을 검토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外國語 教授法에서 알려진 여러 방법들을 직접 論하지 않고 實察的인 側面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바람직한 것인가에 重點을 두었던 것이다.

31) 신성철외 2人. op.cit. P. 44

V. 早期 英語教育의 教材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또 하나 거론하여야 할 것은 教育材料인 教材의 선택문제이다. 우리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재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면밀히 기획, 검토되어 作成되어야 하는데 앞서 논의한 교수방법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일반적인 教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英語教材의 要件

英語教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發音, 文法, 內容등에서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Tucker는 教材評價기준으로 여러가지를 細分하여 論하고 있다. 32)

o 發音범주

가. 發音의 提示가 철저할 것 — 자음, 모음, 초분절음소 포함.

나. 발음의 제시가 적절할 것 — 한국어와 영어음 대조, 분석을 이용

다. 연습이 적합할 것 — 어려운 것은 집중 연습.

o 文法범주

가. 문형의 목록이 적합할 것 — 상당수의 부사, 형용사도 필요.

나. 배열순서가 적절할 것 — 이미 배운 구조에 새로운 구조를 배울 수 있도록 조절

다. 연습모델과 문형의 例示가 적절할 것 — 문형은 화살표, 상자넣기, 활자체 변화를 이용.

라. 연습이 적합할 것 ————— 다양하며 흥미있어야 함.

o 내용범주

가. 기능적인 비중이 배려될 것 — 중요한 기능을 갖는 인사말과 be 動詞를 먼저 다룸.

32) Tucker, C.A. 1978. "Evaluating Beginning Textbooks" in Madsen, H.S Brown J.D (eds). Adaptation in Language. Rowely Mass : kewbury House Publisher. Pp. 219-237

나. 도입과 재도입이 적절할 것 — 한 시간에 3개의 文法構造를 도입하고
그후 再使用되어야 함.

다. 문맥과 상황을 적합하게 할 것 — 현실적인 對話 포함.

o 일반요건

가. 사용언어가 표준어일 것

나. 교육보조재료가 있을 것

다. 母國語 話者가 아닌 教師를 위한 적당한 지침서가 있을 것.

라. 저자가 유능할 것

마. 上級學年의 教材와 연결이 잘 될것.

사. 빨리 닳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 편집과 인쇄가 잘되어 있을 것.

자. 價格이 적절할 것.

이와같은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早期英語教育 教材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학교에서 실시될 教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重點的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英語教材의 內容

먼저 教材의 所在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어린이들의 세계는 경험이 넓지 못하고 관심의 초점이 대체로 가족관계, 학교생활, 교우관계등 자신을 중심으로 좁은 테두리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教材內容에 있어 너무나 자신과 동떨어진 사물이나 상황에 관한 것을 택하지 말고 흔히 어린이들 자신의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들을 문맥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Madsen 과 Bowen 에 의해서도 상황적 현실감 (Situational realism) 이란 말로 주장된 바 있다. 33)

즉, 教材의 상황은 實生活에서 그래도 그럴듯하게 일어나는 상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우리의 傳統的인 英語教科書에는 첫 科의 첫 文章이

33) 최은경. 1981. Ibid.P.6

This is a book .

That is a Pen .

등으로 시작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活用可能性이 희박한 文章들을 읽고 외우고 쓰는 것이 이른바 教科書的인 英語工夫의 전통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학교에서의 英語의 基本教材는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될 것이다.

This is a book, 보다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와 같이 자신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주변상황이 포함되거나 I am happy. 또는 I am hungry. 등의 文章이 수록되어 자기자신을 發表할 수 있는 內容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생활주변의 素材라 하여도 論理가 成立되지 않는 文章을 내용으로 하거나 특수한 경우외에는 非現實的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에 지나지 않는 다음과 같은 文章은 제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Am I a boy ?

Are you my mother ?

즉, 이렇게 자명한 사실을 묻거나 자기 자신이 더 잘 알만한 일을 남에게 묻게 되는 式의 억지문장은 無意味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對話表現의 現實感은 英語教材內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화의 상황은 우리生活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상황에 가까워야 하며 對話에서 사용되는 言語表現도 事實感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對話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경우, Jimmy, Tom, Bob, 등이 되어야 친근한 어린이의 이름으로 느껴지고 現實感이 있어 보인다.

국민학교 英語教材는 教科書的인 英語보다 會話能力을 포함한 實用英語 위주로 作成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문제이다. 이점은 早期英語教育을 反對하는 입장에서조차도 生活英語만큼은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口語위주의 會話體 文章을 통해 산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教材 作成에는 반드시 實用英語를 대부분 수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말해 둘것은 生活英語라 해서 格式이 전혀 없고 品位없는 內容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生活英語에서는 文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릇된

경향이 있는데 인사말 한마디에도 엄연히 文法的 規則이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특히 예의 바르고 점잖은 英語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국민학교 英語教材는 산 영어 (Living English) 를 수록한 現實感에 넘치는 教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實用英語를 수록하여 점잖은 會話能力을 도모할 수 있는 教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理想的인 教材에서는 노래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노래의 가사는 앞에서 배운 부분을 복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曲 자체도 아동의 연령에 적절하게 부담없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면 학습에서 오는 피로를 잊을 수 있는 좋은 휴식을 제공하면서 效果的인 복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에서 本考는 국민학교 英語教育을 어떻게 하면 效果的이며 成功的으로 實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았다. 筆者는 우리나라 국민학교에서 早期英語教育을 施行하기로 政策的으로 決定된 이후 效率的인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方案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데서 問題를 제기하고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實地적 方案의 究明을 重點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제 2 장은 早期 外國語教育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早期英語教育의 贊反論을 검토한 후 筆者의 입장을 綜合한 것이다. 外國語를 早期에 가르쳐야 한다는 見解는 학습자의 연령과 지능과 동기 및 언어문제와 관련시켜 볼때 외국어를 적기에 빨리 가르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理論이다.

이에 對해 早期 外國語教育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反證을 例示하면서 反對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贊·反 兩論이 蹁蹁히 맞서 왔는데 일단 實施하기로 決定된 이상 反對論者들도 끝까지 反對만 할 것이 아니라 反對理由와 要素들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면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면 效率的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힘과 에지를 모아야 한다.

제 3 장에서는 早期英語教育이 직접 실시될 국민학교 教育현장에서 나타나는 問題點과 관련하여 教師와 學生과 學校는 각기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教師는 心理的으로 권위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열성을 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教育에 임해야 한다. 현재 教師의 가르침을 받을 學生의 경우 英語教育에 대한 동기유발과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바, 學校는 계속해서 學生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청각교재 준비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 4 장은 국민학교에서 英語를 가르치는데 있어 어떻게 가르치면 우리의 여건에 맞는 效果的인 方法이 될 것인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종래의 外國語 教授法을 論하는데 重點을 두지않고 보다 實察的인 側面에 치우쳐 우리나라 국민학교에서 實施할 수 있는 方法을 究明하려고 하였다.

英語教育에서 네가지 기능(four skills)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발음지도를 함에 있어 최소 대립어를 찾는 방법, 발음시 발성기관을 알려주는 방법 대조, 분석의 이점을 응용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다.

어휘는 주어진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文章構造上으로 우리말과 英語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국민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노래와 게임을 이용하여 英語를 가르치는 것도 보다 效果的일 것이다.

제 5 장은 早期英語教育의 教材가 갖추어야 할 基本要件과 內容을 다룬 것이다. 英語教材는 發音과 文法, 內容과 一般要件에 따라 자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教材의 素材는 일상생활과 관계깊은 現實感넘치는 상황이 부여 되어야 한다. 對話表現의 現實感이 특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外國語 教育에 있어서 그 기초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再論할 필요가 없으나 국민학교에서 英語를 가르치는 課題 자체가 최근에 시도되는 일인 만큼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을 앞에 놓고 教育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早期英語教育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필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국민학교 英語教育에서 좋은 成果가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1) Anderson, T. 1969. 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Austin: Texas Univ. Press.
- 2) Asher, T. T. and Garcia, R. 1969. "The optional 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334-341)
- 3) Brown, H. 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 T : Prentice-Hall
- 4) Fires, C. C. 1945. Teaching and Learning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 Univ. of Michigan Press
- 5) Krashen, S. D. 1973 " Lateralization, Language, Learning, and the Critical Period; Some new evidence " Language Learning 23 (63-74)
- 6) Lambert, W. E. 1963.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7) Lam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wileg.
- 8) Mackey, W. H. 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Bloomington, Indiana ; Indiana Univ. Press.
- 9) Miller, G. A. 1951.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10) Paulston, C. B. and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 ; Winthrop Publishers, Inc.
- 11) Penfield, W. & Robert,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 Princeton Univ. Press.
- 12) Rivers, W. H.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13) Scovel, T. 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 Language Learning 19. (245-254)
- 14) Stern, S. 1941. Foreign Languages in Primary Educ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 15) Stanton, S. 1941. Psychology in Education. New York; Appaleton Century Inc.
- 16) Tucker, C.A. 1978. "Evaluating Beginning Textbooks" Madsen, H.S. & Bowen, J.D.(eds), Adaptation in Language, Rowley, Mass, Kewbury House Publishers.
- 17) 박남식, 1979. "국민학교 英語教育의 딜렘마-문제와 대안". 英語教育 제 17 호 (51-61)
- 18) 박순함. 1982. 効率的인 국민학교 英語教育을 위한 提言. 시사영어 연구 277 호 서울; 시사영어사.
- 19) 박순함. 1981. "국민학교 英語教育". 경향신문 81년 10월 16일 호
- 20) 朴義載 1981. 英語學習指導의 理論과 實際. 서울; 학문사.
- 21) 박준희, 1981. "외국어 조기교육 과연 좋은가". 제주신문 81년 2월 13일
- 22) 신성철, 황봉주, 권오량. 1982 "早期英語教育의 實踐方案研究 및 教材開發" 언어 제 3 호. 충남대 언어훈련원
- 23) 신용진. 1981. 영어교수 학습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24) 양인석, 1980. "영어조기교육의 贊反論" 외국어 교육논문집 한국의국어대학, 외국어 연수원.
- 25) 전상범, 1981. "FLES에 관한 몇가지 문제들". 서울사대 논문집 23(27-41)
- 26) 오영숙. 1981. "조기외국어 교육은 부적당". 제주신문 81년 호.
- 27) 정명우, 1977.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理論的 研究". 부산사대 논총 제 4 집.
- 28) 최문식, 1972. 국민학교 아동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논문
- 29) 최용재, 1981. "영어조기교육 꼭 해야 하나". 영어교육학회 심포지엄, 제 18494 호
- 30) 최준기, 1978. "국민학교 영어교육론". 김영희 박사 송두기념 영어학 논총 서울; 형설출판사.

— Summary —

It is estimated that in schools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about 3,000 languages in the world.

About 200 million people speak English as their own language and 200 million people speak English as second language.

Like this, English is so common and useful that numerous people are trying to learn this world language and it is rapidly becoming a cosmopolitan means of communication.

So the need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s steadily increasing in many countries.

In Korea, we have been teaching this foreign language (English) to the students for about six or ten years.

Of course we made relatively good progres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yet they proved to be inefficient in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of the target language.

There must be lots of deficiencies in teaching foreign language to them. If we look forward to the actual, good command of using English from our students, we should avoid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And it is some what late to start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middle schools.

In most parts of the world today, there is a trend to begin the teaching of the foreign language earlier in the elementary schools.

Children have amazing capacities, such as good memory, imitation, repetition, adaptability, lasticity, etc, for studying foreig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eaching method and suitable age for learning foreign language through educational,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effective and indispensable to learn foreign language earlier.

Then, the ai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s to practise the four skills, that is to say, hear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o develop these four skills, rapid oral drill is very effective for the beginners and a number of model classrooms have to be set up to try out the new teaching materials and special training. The children should form a habit of thinking in the foreign language, too.

The individual teacher must adapt its techniques to his purposes, to his own personality, having regard to their age, interest, situation and their educational needs.

In short, the teacher introduce children to a second language in the early grades of the elementary school, using new methods and materials suitable for lower age groups.

But in Korea the case is different, so it will be proper and effective for the beginners to learn foreign language in the 5th and 6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

We concluded that foreign language learning should start before the teens in the elementary school, because children learn languages better and more easily than adults.

The writer expresses great regret for not fulfilling the attempted project more accurately and in detail.

Many problems for teaching foreign language remain unsolved, and we need our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teaching.